

제108호(2015. 8. 20.)

2015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생산실태 및 시장전망

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1. 국내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현황	1
2. 국내 친환경농산물의 시장규모와 전망	7
3. 세계 유기농업의 현황 및 시장규모	11
4. 시사점과 과제	1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감 수	김홍상 선임연구위원	061-820-2236	hskim@krei.re.kr
내용 문의	김창길 선임연구위원	061-820-2265	changgil@krei.re.kr
자료 문의	성진석 선임전문원	061-820-2212	jssaint@krei.re.kr

- 「KREI 농정포커스」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요 약

-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은 2009년을 정점으로 이후 크게 감소하고 있음**
 - 저농약 인증제도 폐지의 영향으로 2010년 이후 저농약 인증면적이 크게 감소
 - 인증관리 강화의 영향으로 2013년 이후 유기와 무농약 농산물 인증면적도 감소
-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의 감소로 시장규모도 줄어들고 있으며, 2014년은 전년보다 10.5% 줄어든 약 2조 4,221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됨**
 - 품목류별 시장규모 비중은 과실류(32.2%), 채소류(24.0%), 곡류(21.5%)의 순
 - 인증단계별 시장규모 비중은 무농약(51.6%), 저농약(35.3%), 유기농(13.0%)의 순
- **세계적으로 농산물의 안전성과 건강을 추구하는 웰빙트렌드의 확산으로 유기농산물 시장규모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2000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세계 유기농산물은 2013년 기준 약 170개국, 4,310만 ha의 면적에서 생산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유기농식품 세계 시장규모는 1990년 150억 달러에서 2012년에는 4.3배 증가한 640억 달러, 2013년에는 4.8배 증가한 720억 달러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 **2015년 이후 시장규모는 감소 추세가 지속되다가 정부의 육성정책에 힘입어 2017년 이후부터는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
 - 저농약 인증 폐지로 친환경과일 공급물량이 크게 감소하여 시장규모는 2015년 2조 3,664억 원, 2016년 1조 8,753억 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
 - 2017년부터는 정부의 육성정책에 따라 증가세로 전환되어 2024년 전체 농산물 거래액의 약 12%인 4조 371억 원으로 전망
-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및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긴요**
 - 단기적으로 저농약 인증제도 폐지에 대응하여 친환경 과실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직불제의 개선, 생산자 보험 도입, 유기농과수 재배 매뉴얼 작성 및 보급 등의 대응방안 긴요
 - 중장기적으로 유기와 무농약 농산물 시장규모 확대에 대응하여 수요창출(학교급식 확대, 가공식품 생산 등)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필요

1. 국내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현황

□ 유기와 무농약 재배면적 2013년 이후 감소

- 친환경농산물 생산은 2009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표 1>
 - 2009~2014년 동안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수는 연평균 15.6%, 인증면적은 13.1%, 출하량은 18.9% 감소
 - 2011~2014년 동안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수는 연평균 19.1%, 인증면적은 16.6%, 출하량은 23.6% 감소
 - 인증면적을 기준으로 인증단계별 변화를 살펴보면 유기와 무농약은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다 2013년 이후 감소함. 저농약은 2008년 이후 계속해서 감소함. 전체 경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11.6%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2014년 5.9%임

표 1. 연도별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변화 추이

구분		2000	2009	2010	2012	2013	2014	2009~14	2011~14
								연평균 증감률 (%)	연평균 증감률 (%)
유기	농가 수(호)	353	9,403	10,790	16,733	13,963	11,633	4.3	-4.5
	면적(ha)	296	13,343	15,517	25,467	21,210	18,306	6.5	-1.8
	출하량(톤)	6,538	108,810	122,243	168,256	119,290	95,694	-2.5	-8.1
무농약	농가 수(호)	1,060	63,653	83,136	90,325	89,992	56,756	-2.3	-14.2
	면적(ha)	876	71,039	94,533	101,657	98,233	65,061	-1.7	-11.9
	출하량(톤)	15,694	879,930	1,039,576	841,513	691,238	479,441	-11.4	-21.2
저농약	농가 수(호)	1,035	125,835	89,992	36,025	22,797	16,776	-33.2	-33.7
	면적(ha)	867	117,306	83,956	37,165	22,209	16,679	-32.3	-34.0
	출하량(톤)	13,174	1,369,034	1,053,702	488,466	370,898	250,348	-28.8	-30.6
합계	농가 수(호)	2,448	198,891	183,918	143,083	126,752	85,165	-15.6	-19.1
	면적(ha)	2,039	201,688	194,006	164,289	141,652	100,046		
	(면적비중)	(0.1)	(11.6)	(11.3)	(9.5)	(8.3)	(5.9)	-13.1	-16.6
	출하량(톤)	35,406	2,357,774	2,215,521	1,498,235	1,181,426	825,482	-18.9	-23.6
	경지면적(ha)	1,888,765	1,736,798	1,715,301	1,729,982	1,711,436	1,691,113	-0.5	-0.1

주: 친환경농산물 인증단계는 유기, 무농약, 저농약이 있으며 저농약은 2015년까지만 존재함.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통계정보(<http://www.enviagro.go.kr>).

- 인증단계별 친환경농산물 출하량을 보면, 200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이후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1>
- 유기농산물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최고치인 16만 8,256톤을 나타내었으나 2013년 이후 감소하였음. 2014년 유기농산물 출하량은 전년 대비 19.8% 감소한 9만 5,694톤임

“

유기와 무농약
재배면적 2013년
이후 감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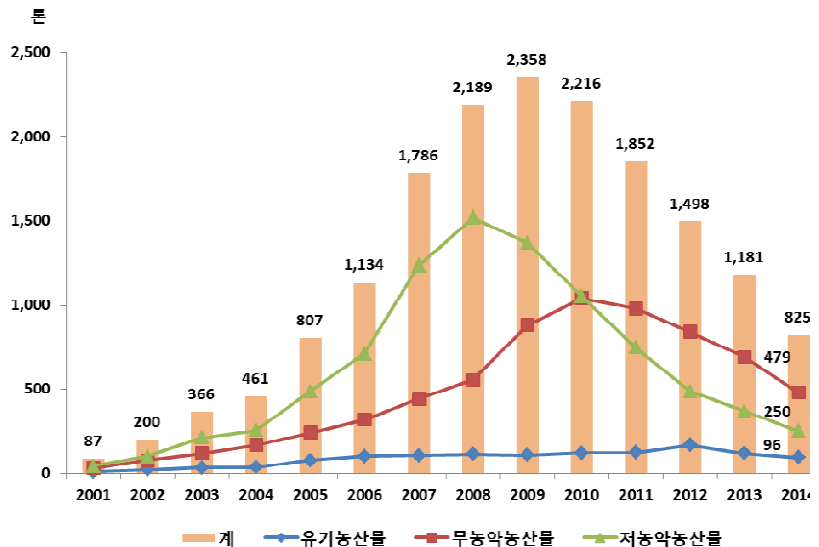
“

2011년부터 저농약
농산물 출하량이
무농약 농산물보다
적어지기 시작

”

- 무농약 농산물은 2010년 103만 9,576톤으로 최대 출하량을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2014년 기준 무농약 농산물은 전체 친환경농산물 출하량 47만 9,441톤의 58.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저농약 농산물은 2008년 151만 9,070톤까지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이후 빠르게 감소해 왔으며, 2014년에도 전년 대비 32.5% 감소한 25만 348톤임. 2011년부터 저농약 농산물 출하량이 무농약 농산물보다 적어지기 시작하였으며, 2014년에는 저농약 농산물이 22만 9,000톤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친환경농산물 출하량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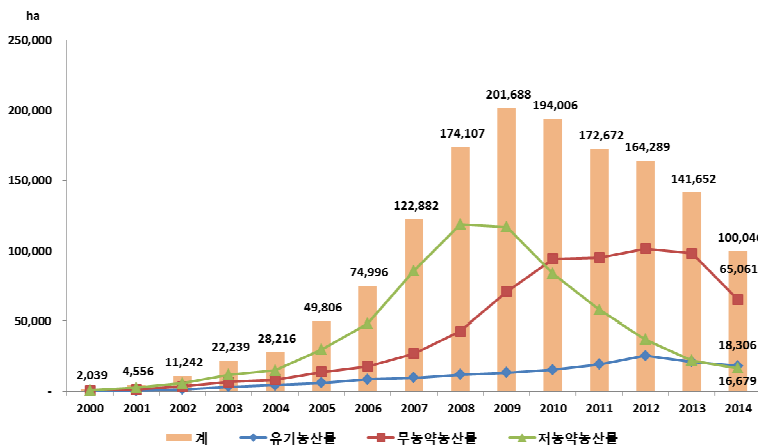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통계정보 (<http://www.enviagro.go.kr>).

- 친환경농산물 전체 면적을 보면, 2007년까지 빠르게 증가하다가 2008년 전년 대비 증가율이 다소 줄어들었고, 2009년 20만 1,688ha 이후부터는 계속 감소하여 2014년에는 10만 46ha에 머물렀음<그림 2>
- 유기 인증면적은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기준 2만 5,467ha로 최고치를 나타냈으나 2013년 이후에는 감소하여 2014년 1만 8,306ha임

- 무농약 인증면적 역시 꾸준하게 증가추세를 유지하여 2012년 기준 10만 1,657ha로 최대 인증면적을 기록하였으나 2013년 이후에는 감소하여 2014년 6만 5,061ha임
- 저농약 인증면적은 2008년 11만 9,136ha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급격하게 감소해 왔으며, 2010년부터는 무농약 인증면적보다 적어졌고, 2014년에는 유기보다 적은 1만 6,679ha임

그림 2.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변화 추이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통계정보(<http://www.enviagro.go.kr>).

“
2014년 유기
인증면적은
1만 8,306ha로
저농약보다 많은
수준
”

- 2014년을 기준으로 부류별 인증단계별 출하 현황을 살펴보면, 유기농산물이 11.6%, 무농약 농산물이 58.1%, 저농약 농산물이 30.3%를 차지하여 무농약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부류별로 살펴보면 곡류는 전체 15만 7,294톤 가운데 무농약이 72.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유기 24.8%, 저농약 2.9%를 차지하고 있음. 채소류도 전체 24만 9,935톤 가운데 무농약이 59.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저농약 26.4%, 유기 14.1%를 차지하고 있음. 서류와 특용작물도 무농약이 각각 78.1%, 96.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과실류의 경우는 전체 20만 7,616톤 가운데 저농약이 85.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무농약 10.6%, 유기 3.5%를 차지함

“ 저농약 농산물 출하량 가운데 과실류가 차지하는 비중 71.2%로 가장 많아 ”

- 전체 저농약 농산물 25만 347톤 가운데 과실류 저농약이 71.2%인 17만 8,367톤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 저농약 인증제 폐지에 대응하여 과실류 저농약을 유기나 무농약으로 전환 시키기 위한 특단의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 2. 친환경농산물 분류별인증단계별 출하 현황(2014)

분류별	단위 톤 %			
	유기	무농약	저농약	계
곡류	38,932 (24.8)	113,809 (72.4)	4,553 (2.9)	157,294 (100.0)
과실류	7,202 (3.5)	22,047 (10.6)	178,367 (85.9)	207,616 (100.0)
채소류	35,219 (14.1)	148,656 (59.5)	66,060 (26.4)	249,935 (100.0)
서류	3,349 (17.7)	14,800 (78.1)	812 (4.3)	18,961 (100.0)
특용작물	5,975 (3.3)	175,589 (96.7)	98 (0.1)	181,662 (100.0)
기타	5,016 (50.1)	4,540 (45.3)	457 (4.6)	10,013 (100.0)
합 계	95,693 (11.6)	479,441 (58.1)	250,347 (30.3)	825,481 (100.0)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통계정보(<http://www.enviagro.go.kr>).

□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은 전남이 4만 2,347ha로 가장 넓어

- 지역별 인증면적은 전남이 2014년 기준 총 4만 2,347ha로 전국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의 42.3%로 가장 넓으나 전년(49.7%)보다 7.4%p 축소
 - 이어서 경북 1만 2,717ha(12.7%), 충남 9,659ha(9.7%), 경남 8,847ha(8.8%), 전북 7,180ha(7.2%), 경기 6,958ha(7.0%), 강원 5,930ha(5.9%)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표 3>
 - 반면 충북과 제주는 각각 3,808ha(3.8%)와 2,602ha(2.6%)로 다른 지역에 비해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이 크게 적었음

표 3. 지역별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2014)

단위: 호, ha, 톤, %

구 분		유기	무농약	저농약	계	인증면적 비중(%)	경지면적 비중(%)
경 기	농가 수	1,190	4,679	980	6,849	6.95	3.54
	면적	1,748	4,220	990	6,958		
	출하량	11,094	77,983	17,318	106,395		
강 원	농가 수	763	2,459	431	3,653	5.93	5.45
	면적	1,606	3,946	377	5,930		
	출하량	10,685	20,701	5,609	36,995		
충 북	농가 수	819	2,476	733	4,028	3.81	3.40
	면적	863	2,152	793	3,808		
	출하량	7,778	49,782	16,011	73,571		
충 남	농가 수	1,844	3,764	1,673	7,281	9.65	4.16
	면적	2,639	4,273	2,747	9,659		
	출하량	15,160	37,299	25,039	77,498		
전 북	농가 수	1,000	4,167	851	6,018	7.18	3.51
	면적	1,776	4,519	885	7,180		
	출하량	9,932	26,260	10,312	46,503		
전 남	농가 수	3,144	27,368	1,381	31,893	42.33	13.39
	면적	5,256	35,699	1,392	42,347		
	출하량	15,489	95,682	24,953	136,123		
경 북	농가 수	1,391	5,830	7,462	14,683	12.71	4.44
	면적	1,423	5,055	6,238	12,717		
	출하량	9,127	121,177	104,420	234,724		
경 남	농가 수	1,229	5,176	3,160	9,565	8.84	5.15
	면적	1,578	4,092	3,177	8,847		
	출하량	8,134	39,399	45,285	92,818		
제 주	농가 수	253	837	105	1,195	2.60	4.15
	면적	1,417	1,105	79	2,602		
	출하량	8,295	11,158	1,402	20,855		
계	농가 수	11,633	56,756	16,776	85,165	100.00	5.92
	면적	18,306	65,061	16,679	100,046		
	출하량	95,694	479,441	250,348	825,482		

주: 광역시의 자료는 전체 합계에 포함됨.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통계정보(<http://www.enviagro.go.kr>), 통계청.

“

전남지역 인증면적
비중이 42.3%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나 전년보다
7.4%p 축소

”

- 경지면적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전남의 경우 총 경지면적 31만 6,259ha 중 4만 2,347ha가 친환경농업 인증을 받아 13.4%라는 큰 비중을 보였으나 전년(22.1%)보다 8.7%p 축소
 - 한편, 전남지역은 유기농산물과 무농약 농산물 재배면적이 친환경재배 면적의 96.7%로, 저농약 인증이 폐지되더라도 친환경농업 생산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경북지역은 저농약 재배면적이 6,238ha로 총 경지면적 28만 6,310ha 중 49.1%를 차지하여 저농약 폐지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경북지역은 과수 농가가 친환경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무농약 이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의 정비가 필요함

□ 유기식품 수입금액 지속적으로 증가

- 전체 식품수입 중 유기식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금액기준 1% 이하이며, 2010년 이후 연평균 증감률을 보면, 건수는 7.5% 감소한 반면, 물량은 0.3%, 금액은 10.3%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4. 최근 5년간 수입 현황

단위: 천 건, 천 톤, 천 달러

구분	수입식품			수입유기식품		
	건수	물량	금액	건수	물량	금액
2009	255	11,302	8,434,081	3.7(1.5%)	21(0.2%)	39,920(0.5%)
2010	294	12,906	10,335,539	4.1(1.4%)	26(0.2%)	49,73(0.5%)
2011	313	13,471	13,195,077	4.0(1.3%)	27(0.2%)	59,249(0.4%)
2012	326	13,757	14,370,106	2.3(0.7%)	22(0.2%)	43,707(0.3%)
2013	353	13,645	14,690,746	2.4(0.7%)	21(0.2%)	54,040(0.4%)

주: ()는 전체 수입식품 중 유기식품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냄.

유기식품 수입물량은
정체된 가운데
수입금액 지속적으로
증가

- 유기식품은 대부분 표시제에 따라 수입된 물량이며 품목별 현황을 중량 순으로 살펴보면 갈색설탕, 과채가공품, 바나나/신선·냉장의 수입. 국가별 현황을 중량 순으로 살펴보면, 캐나다, 페루, 콜롬비아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5. 유기식품 품목국가별 수입 현황(2013년 기준)

순번	품목(중량 순)	중량(kg)	제조국(중량 순)	중량(kg)
1	갈색설탕	3,388,751	캐나다	2,559,952
2	과채가공품	2,923,638	페루	2,206,088
3	바나나/신선·냉장	2,477,984	콜롬비아	2,001,916
4	대두/건조	2,182,000	미국	1,944,448
5	당류가공품	1,999,801	브라질	1,909,069
6	침출차	974,635	호주	1,683,952
7	밀/알곡	844,190	중국	1,669,674
8	밀/밀(계분용)	778,693	이탈리아	1,363,626
9	파스타류	410,709	터키	947,777
10	영양강화밀가루	348,940	태국	574,144
11	과채음료	309,867	멕시코	558,452
12	키위/신선·냉장	267,550	필리핀	483,394
13	두류가공품(대두분)	259,120	아르헨티나	465,956
14	탄산음료	204,308	쿠바	374,000
15	백설탕	164,000	오스트리아	371,083
16	기타가공품	162,111	칠레	360,332
17	텍스트린	146,750	뉴질랜드	342,131
18	곡류가공품	139,384	네덜란드	284,441
19	땅콩 또는 견과류 가공품	124,615	독일	231,518
20	당시럽류	124,601	파라과이	120,000

주: 품목 및 국가 정렬기준: 중량의 상위 20 품목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2014. 수입식품 등 검사연보.

2. 국내 친환경농산물의 시장 규모와 전망

□ 2014년 국내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2조 4,221억 원 수준

-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친환경 농법별 재배면적에 단수를 적용하여 생산량을 추정하고 농법별로 시장에서 판매되는 양을 추정한 후, 유통업체의 수수료, 유통비용, 판매가격 등을 고려하여 개략적으로 추정하였음
- 2014년 기준 친환경농산물의 시장 유통규모 추정 결과 과실류의 유통규모는 약 7,800억 원으로 전체 친환경농산물 유통규모의 32.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
 - 채소류는 5,817억 원으로 전체 유통규모의 24.0%를 차지하였고, 곡류가 다음 순으로 전체 유통규모의 21.5%인 5,210억 원으로 나타남
- 따라서 2014년도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총 규모는 2013년보다 10.5% 감소한 2조 4,22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시장규모가 전년과 비교하여 감소한 이유는 저농약 인증 재배면적이 2013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고, 무농약도 인증제도 강화로 전년보다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보임

“

2014년 시장규모는
전년보다 감소한 2조
4,221억 원 수준

”

표 6. 친환경 인증 농산물의 시장 유통규모(2014)

단위: 억 원 %

구분	곡류		채소류	과실류	서류	특작기타	계
		쌀					
유통규모	5,210	4,888	5,817	7,800	647	4,747	24,221
비중(%)	21.5	20.2	24.0	32.2	2.7	19.6	100.0

주: 2014년도 친환경농산물 유통규모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하량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음.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정치(2015. 7.).

2015년 시장규모는
2014년보다
2.3% 감소할 전망

- 2014년도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를 유통단계별로 살펴보면 유기농이 13.0%인 3,156억 원, 무농약이 51.6%인 1조 2,503억 원, 저농약이 35.3%인 8,562억 원으로 나타남<표 7>
- 무농약 인증 시장규모가 전년에 이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표 7. 친환경 농산물의 인증단계별 시장 유통규모(2014)

단위: 억 원 %

구 분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계
곡류	1,570	3,525	115	5,210
쌀	1,458	3,320	110	4,888
기타	112	205	5	322
채소류	856	3,290	1,671	5,817
과실류	304	758	6,738	7,800
서류	118	504	25	647
특작기타	308	4,427	12	4,747
계	3,156	12,503	8,562	24,221
비중	13.0	51.6	35.3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정치(2015. 7.).

□ 2016년 친환경농산물 전년 대비 20.8% 감소할 전망

- 친환경농산물의 시장규모는 2016년 저농약 인증제 완전 폐지 등의 예상되는 중요 정책적 변화를 고려하였음. 즉 저농약 인증으로 재배하고 있는 일부가 유기와 무농약으로 전환하는 것을 가정하였음. 전환되는 정도는 농가조사(정학균·문동현, 2013. 『친환경농산물 저농약인증제 폐지에 따른 대응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결과를 활용하였음
- 농가조사 결과 저농약농가들의 인증 폐지에 대한 대응방향으로는 유기 전환 5.7%, 무농약전환 30.7% 등으로 나타남
- 2015년 친환경농산물 거래규모는 평년작황을 가정할 경우 2014년 대비 2.3% 정도 감소한 2조 3,664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
- 유기와 무농약은 약간 증가하지만 저농약 재배면적이 감소하기 때문
- 2016년 친환경농산물 거래규모는 2015년 대비 20.8% 정도 감소한 1조 8,753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유기와 무농약은 소폭 증가하는 데 반해 저농약 인증제도의 완전 폐지로 저농약 농산물이 없어지기 때문

○ 2016년 친환경농산물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이유는 친환경과실류 시장규모가 크게 감소하기 때문임

- 친환경 과실류는 2014년 7,800억 원에서 2016년 2,087억 원으로 약 73% 감소할 전망이다. 과실류의 경우 대부분 저농약 인증으로 재배되어 왔으나 2016년부터 저농약 인증제도가 폐지되어 더 이상 저농약 인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임. 다시 말하면 저농약으로 재배하던 과실류 재배 농가가 유기나 무농약의 상위 인증단계로 전환하기보다는 GAP 인증을 받으려 하거나 일반관행으로 회귀하려는 의향이 매우 높기 때문임

* GAP 인증은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제도로 생산단계에서 판매단계까지의 농산식품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친환경 과실류 공급량의 급격한 감소는 결국 꾸준히 친환경농산물을 소비하는 계층의 소비 권한을 저해할 수 있음. 또 친환경과실류가 GAP나 일반관행농산물로 대체될 경우 다른 품목류와의 구색이 맞아 다른 품목류의 유통 및 소비도 저하될 수 있을 것임. 뿐만 아니라 학교 및 회사 급식에서도 친환경과실류가 빠질 경우 친환경급식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친환경농업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

□ 2017년 이후 국내 친환경농산물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 전망

○ 2017년 이후 2024년까지의 친환경농산물 시장 유통규모는 정부의 친환경농업 추진 정책의지에 따라 생산량이 증가하며, 점차적으로 가속화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추정함. 정부는 2016~2020년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통해 적극적인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음. 2017년의 친환경농산물 거래규모는 2조 629억 원, 2020년에는 2조 7,618억 원, 2024년에는 4조 371억 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표 8>

“

2016년 시장규모는 저농약인증제 폐지에 따라 큰 폭으로 감소하나 2017년 이후 증가할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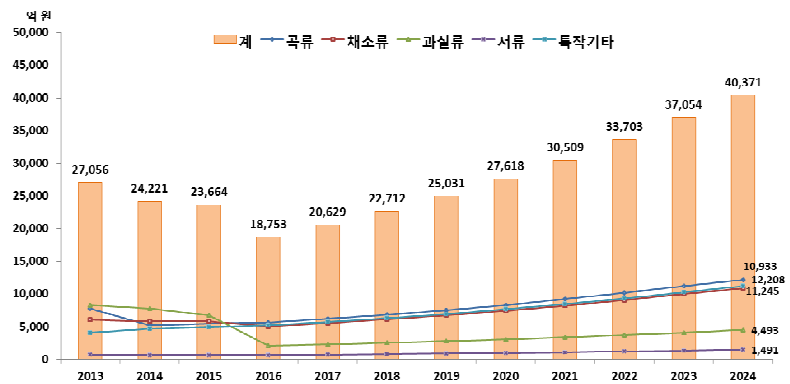
표 8. 품목류별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 전망

단위: 억 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20	2024
곡 류	7,815	5,210	5,455	5,671	6,238	8,352	12,208
쌀	7,178	4,888	5,118	5,320	5,852	7,834	11,452
기타	637	322	337	352	387	518	757
채소류	6,107	5,817	5,817	5,079	5,586	7,479	10,933
과실류	8,296	7,800	6,735	2,087	2,296	3,074	4,493
서 류	762	647	675	693	762	1,020	1,491
특작·기타	4,077	4,747	4,982	5,224	5,746	7,693	11,245
총 계	27,056	24,221	23,664	18,753	20,629	27,618	40,371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정치(2015).

그림 3. 품목류별 친환경농산물 시장전망



주: 2016년 이후 저농약 인증제도 완전 폐지를 적용함.

- 인증단계별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표 9>와 같음
 - 유기농산물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3,376억 원, 2016년 3,731억 원, 2020년 5,494억 원, 2024년 8,031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
 - 무농약 농산물은 2015년 이후 증가하여 2015년 1조 3,438억 원, 2016년 1조 5,023억 원, 2020년 2조 2,124억 원, 2024년 3조 2,339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저농약 농산물의 경우는 2013년 8,683억 원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 6,850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

표 9. 인증단계별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 전망

단위: 억 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20	2024
유기농	3,085	3,156	3,376	3,731	4,104	5,494	8,031
무농약	15,288	12,503	13,438	15,023	16,525	22,124	32,339
저농약	8,683	8,562	6,850	-	-	-	-
전 체	27,056	24,221	23,664	18,753	20,629	27,618	40,371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정치(2015).

“

유기와 무농약
농산물 시장규모
2015년 이후
증가할 전망

”

3. 세계 유기농업의 현황 및 시장 규모

▣ 2013년 약 170개국, 7,800만 ha에서 유기농업 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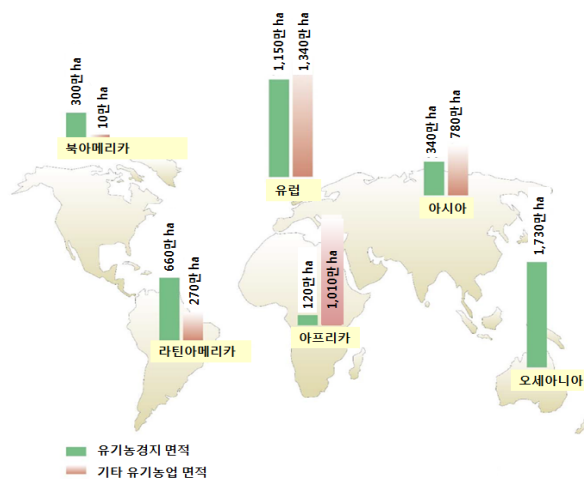
- 유기농경지 4,310만 ha, 기타 유가지역 3,500만 ha로 구성
 - 유기농경지 면적은 2012년 대비 560만 ha 증가하였으며, 전 세계 농경지의 약 1%가 유기농업을 실천 중
 - 기타 유가지역은 대부분 야생채집의 형태이며, 산림, 양식, 초지 등을 포함

“

2013년 세계
유기농경지 면적
전년보다 560만 ha
증가

”

그림 4. 세계 유기농업 실천면적 분포(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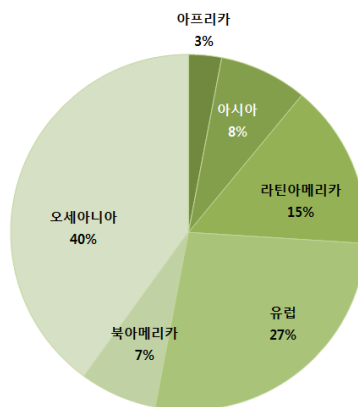


자료: FIBL and IFOAM, 2015, *The World of Organic Agriculture: statistics and emerging trends*.

□ 세계 유기농경지 오세아니아와 유럽에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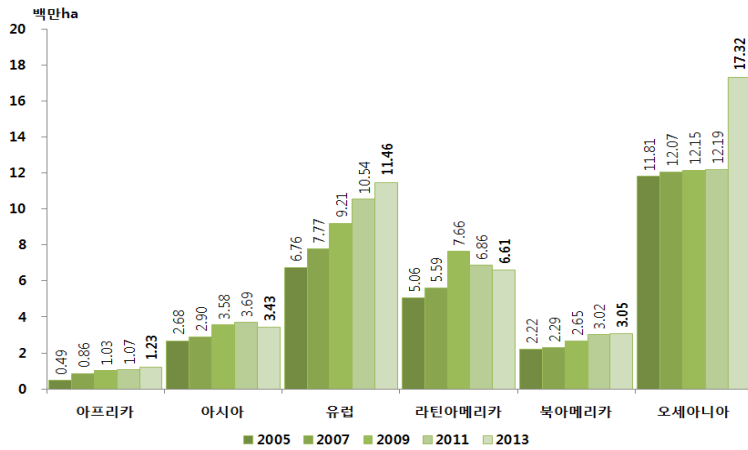
- 세계 유기농경지 분포를 대륙별로 보면, 오세아니아와 유럽이 각각 1,730만 ha와 1,150만 ha로 40%와 27%의 구성비를 보임. 이들 두 지역이 전 세계 유기농경지 면적의 3분의 2를 차지함
- 유기농경지 면적의 변화를 보면, 2013년 기준 면적은 2012년보다 약 560만 ha가 증가한 4,310만 ha로 조사됨
 - 라틴아메리카를 제외한 모든 대륙에서 유기농경지 면적이 확대되었음. 특히 호주의 유기농경지 확대가 큰 영향을 미쳤음

그림 5. 대륙별 유기농경지 분포(2013)



자료: FIBL and IFOAM, 2015, *The World of Organic Agriculture: statistics and emerging trends*.

그림 6. 2005~2013 대륙별 유기농경지 면적 변화



자료: FIBL and IFOAM, 2015, The World of Organic Agriculture: statistics and emerging tre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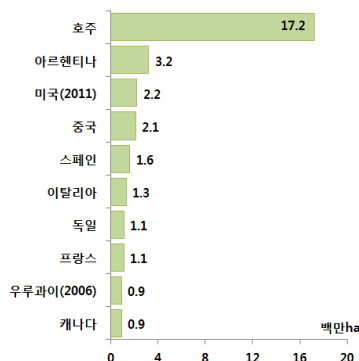
□ 호주의 유기농경지는 1,715만 ha로 가장 넓어

- 국가별로는 호주가 1,715만 ha로 가장 넓으며, 아르헨티나 319만 ha, 미국 218만 ha, 중국과 스페인이 각각 209만 ha와 161만 ha 등의 순
- 농경지 대비 유기농경지 비중은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 높음
 - 포클랜드제도와 리히텐슈타인이 각각 36.3%와 31.0%로 매우 높은 수준임
 - 다음으로는 오스트리아와 스웨덴, 에스토니아, 스위스, 기아나(프랑스령), 사모아, 체코, 라트비아, 이탈리아도 10% 이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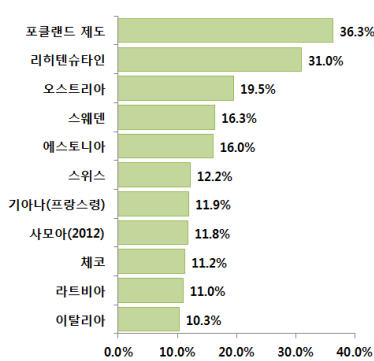
“
농경지 대비
유기농경지 비중은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 높음

그림 7. 주요국의 유기농경지 면적 및 비중(2013)

〈유기농경지 면적 상위 10개국〉



〈유기농경지 비중 상위 10개국〉



자료: FIBL and IFOAM, 2015, The World of Organic Agriculture: statistics and emerging trends.

“

세계 유기농식품
시장규모는 1990년
150억 달러에서
2013년 720억 달러로
빠르게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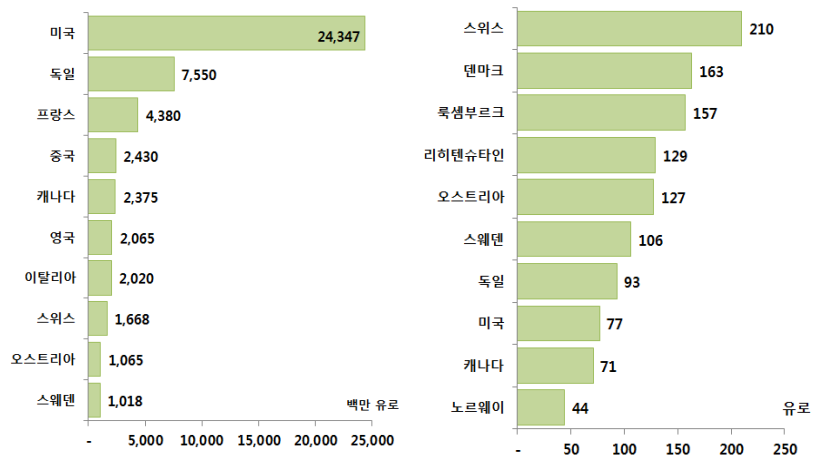
”

□ 2013년 세계 유기농식품 시장규모는 약 640억 달러이며, 북미와 유럽에 집중

- 시장규모는 1999년 150억 달러에서 2012년 640억 달러, 2013년 720억 달러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산업투자와 소비가 크게 줄어들어 유기농식품 시장도 소폭 위축되었으나 이후 다시 높은 성장률을 보임
- 세계 유기농식품 판매의 43%는 미국에서, 40%는 EU에서 이루어짐
 - 가장 큰 유기농식품 시장은 미국이며 243억 유로의 규모인 것으로 파악됨. 다음은 EU이며, 222억 유로의 규모임
 - 유기농식품 구입이 많은 국가는 스위스로 1인당 210유로를 유기농식품 구입에 소비하였으며, 다음은 덴마크로 163유로였음
 - 또한 유기농식품의 시장점유율은 덴마크(8%), 스위스(6.9%), 오스트리아(6.5%)에서 높았음

그림 8. 유기농식품의 시장 규모 및 분포(2013)

〈유기농식품 시장 규모 상위 10개국〉 〈1인당 유기농식품 구입비중 상위 10개국〉



자료: FIBL and IFOAM, 2015. *The World of Organic Agriculture: statistics and emerging trends.*

○ 세계 유기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표 10>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유기농식품 생산과 소비지는 지속적으로 성장해왔음. 유럽과 북미 대륙을 중심으로 성장하여 왔으나, 이들 지역을 제외한 아직 다른 지역에서는 유기농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음

- 농경지에서의 유기농산물 생산은 북미와 유럽 등 선진국에서 많이 이루어지며, 야생채집 등에 의한 생산은 핀란드를 제외하고, 인도와 아프리카의 개도국에서 많이 이루어짐

표 10. 세계 유기농업 주요 지표

구 분	총 규모	주요 국가
유기농경지	2013년 기준 4,310만 ha (1999년: 1,100만 ha)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주: 1,720만 ha •아르헨티나: 320만 ha •미국: 220만 ha(2011년)
농경지 중 유기농경지 비중	2013년 기준: 0.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클랜드제도: 36.3% •리히텐슈타인: 31.0% •오스트리아: 19.5%
기타 유기농업지역 (주로 야생채집)	2013년: 3,510만 ha (2012년 3,040만 ha) (2010년 3,170만 ha)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핀란드: 900만 ha •잠비아: 610만 ha(2009년) •인도: 520만 ha
생산자 수	2013년: 200만 명 (2012년: 190만 명) (2011년: 180만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도: 650,000명 •우간다: 189,610명(2012년) •멕시코: 169,703명
유기농 시장규모	2013년: 720억 달러 (1990년 152억 달러) 자료: Organic Monitor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243억 유로 •독일: 76억 유로 •프랑스: 44억 유로
일인당 소비액	2013년: 10.05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위스: 210유로 •덴마크: 163유로 •룩셈부르크: 157유로
유기농업 규정이 있는 국가 수	2013년 82개국	

자료: FIBL and IFOAM, 2015, *The World of Organic Agriculture: statistics and emerging trends*.

“

농경지 유기농산물
생산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야생채집 등에 의한
생산은 개도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

국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감소세는
저농약인증제 폐지로
2016년까지 지속

”

4. 시사점과 과제

□ 국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감소세 2016년까지 지속

- 정부가 친환경농업을 미래농업의 성장 동력으로 적극 육성함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에 20만 1,688ha로 최고치를 나타냈으나 최근(2011~2014)에는 연평균 16.6%의 감소세로 전환됨. 이와 같이 감소세로 전환된 것은 저농약 인증면적이 감소하였고, 2013년 이후부터는 유기와 무농약 농산물 인증면적도 감소하였기 때문임
- 2014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저농약이 24.9% 감소하였고, 유기와 무농약도 인증 강화로 각각 13.7%, 33.8%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29.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향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저농약 농산물 인증제도가 완전히 폐지되는 2016년까지 계속 감소하지만 2017년 이후에는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저농약 농산물 중 과실류가 차지하는 비중 71.2%

- 2014년 기준 친환경농산물 인증단계별 출하량을 보면, 유기 9만 5,693톤(11.6%), 무농약 47만 9,441톤(58.1%), 저농약 25만 347톤(30.3%)으로 무농약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과실류의 경우 저농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85.9%로 가장 많고, 전체 저농약 농산물 가운데 과실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71.2%여서 2015년 저농약인증제 폐지에 대응하여 과실류 저농약을 유기나 무농약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특단의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지자체의 차별화된 친환경농업 육성정책 필요

- 친환경농업 인증실적이 경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도별로 살펴보면, 전남지역 13.4%, 강원 5.5%, 경남 5.2% 등으로 지자체의 친환경농업 육성전략에 따라 지자체 간에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단위에서 친환경농업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이 중요한 관건임. 더 나아가 지역적 특색에 맞는 품목과 브랜드 발굴을 통하여 지역별로 차별화된 친환경농업 육성전략이 마련되어야 함

□ 단기적으로 친환경과실류 시장규모 감소에 따른 대책 필요

- 2014년도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총 규모는 2013년보다 10.5% 감소한 2조 4,22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시장규모가 전년과 비교하여 감소한 이유는 출하량이 전년보다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임
- 2015~2016년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유기와 무농약 인증 농산물은 소폭 증가하지만 저농약 인증 농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실류 출하량 감소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단기적으로 친환경과실류 시장규모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대책이 필요함(정학균·문동현, 2013. 『친환경농산물 저농약인증제 폐지에 따른 대응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지급단가 및 지급기간에 대한 개방방안 모색이 필요함. 현행 인증 종류와 논, 밭으로만 분리된 지불단가에서 품목별 소득, 생산비 등을 고려한 지급단가로 차별화가 필요함. 그리고 유기농 직불금의 경우 환경보전 기능 등을 고려하여 한시적 직불금에서 지속직불금으로 제도 전환이 필요함
 - 우리나라는 기후, 토양 등 과수를 재배하는 환경이 매우 불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유기농업 확대를 위해서는 농가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과수재배 기술을 시급히 개발하고, 매뉴얼화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음
 - 과실류 농가들의 유기나 무농약재배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병해충관리로 알려져 있음. 병해충 발생으로 소득 감소가 우려되므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친환경 보험제도 도입이 필요함
 - 유기 과수의 경영성과가 우수한 선도 농가가 생산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생산기술 지도 등을 할 수 있도록 유기 과수재배 선도농가의 명예지도사 위촉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직불제의 개선,
재배기술 매뉴얼
작성 및 보급 등
친환경과실류 공급
량 감소에 대비한
적절한 대책 마련
시급

”

“

2017년 이후
시장규모 확대가
예상되므로
수요창출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 필요

”

□ **증장기적으로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 확대에 대응한 유통 및 소비대책 필요**

- 2017년 이후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정부의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의 추진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에 힘입어 2024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곡류와 채소류의 유기, 무농약 농산물의 수요창출(가공식품 생산, 학교급식 확대, 수출확대 등)과 유통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2015년

- 제108호 2015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생산실태 및 시장전망(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107호 최근 소 값 동향과 전망(이형우, 우병준)
- 제106호 한·EU FTA 발효 4년, 농축산물 수출입 변화와 시사점(지성태, 이현근, 이수환)
- 제105호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과제(정은미)
- 제104호 할랄 농식품의 한·일 대응 실태와 과제(박기환)
- 제103호 귀농·귀촌 증가 추세와 정책 과제(송미령, 성주인, 김정섭, 심재현)
- 제102호 한·미 FTA 발효 3년, 농업부문 영향과 시사점(한석호, 정호연, 이수환, 윤정현)
- 제101호 2015년 주요 농정이슈(황의식, 이계임, 성주인)

2014년

- 제100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4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김동원, 박혜진)
- 제99호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직불제 개선방향(정학균, 김창길, 한석호, 서강철)
- 제98호 한·중 FTA 타결과 농업 부문의 과제(어명근, 이병훈, 정대희)
- 제97호 발농업의 쟁점과 발전방향(채광석, 김홍상, 이용선, 김경필, 국승용, 문한필)
- 제96호 농식품 수출의 FTA 활용 현황과 과제(어명근, 이병훈)
- 제95호 농업구조 변화와 농가경제, 정책적 시사점(김미복, 박성재)
- 제94호 지역 간 연계협력 현황을 통해서 본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과제(송미령, 권인혜)
- 제93호 쌀 관세화 전환과 수입 가능성(김태훈, 승준호, 박동규)
- 제92호 주요 농축산물의 2014년 추석 출하 및 가격 전망(박기환, 김태훈, 지인배, 최병옥, 박동규)
- 제91호 FTA 국내보완대책의 성과와 개선 방향(문한필, 정민국, 남경수, 정호연)
- 제90호 농어촌특별세 운용 실태와 정책과제(박준기, 김미복)
- 제89호 한·EU FTA 발효 3년, 농축산물 수출입 변화와 과제(지성태, 이현근, 남경수, 정민국)
- 제88호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성과와 과제(송미령, 성주인, 김광선, 조미형)
- 제87호 소나무재선충병과 방제 정책 과제(이요한, 석현덕, 구자춘)
- 제86호 한·칠레 FTA 10년, 농업분야 이행평가(문한필, 정호연, 김수지, 김영준)
- 제85호 한·미 FTA 발효 2년, 농업부문 영향과 과제(정민국, 문한필, 지성태, 이현근, 남경수)
- 제84호 AI 발생 및 대응 상황과 방역정책 추진 방향(허덕, 한봉희, 김형진, 이형우, 김진년)
- 제83호 2014년 주요 농정이슈와 정책 과제(황의식, 이계임, 송미령)

2013년

- 제82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3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김동원, 박혜진)
- 제81호 중국 농업의 현황과 농정 동향(정정길)
- 제80호 단기소득 임산물의 유통 현황과 주요 과제(정호근, 권오복, 석현덕)
- 제79호 산지축산의 유럽 사례 및 시사점(석현덕, 문지민, 박소희)
- 제78호 2013년 김장철 주요 채소의 수급 전망(서대석, 노호영, 이금호, 이형용, 한은수)
- 제77호 일본 방사능 오염수 유출이 육류 시장에 미치는 영향(허덕, 이형우, 김원태, 김형진, 한봉희)
- 제76호 해외조림투자 확대를 통한 신성장 동력 발굴(이요한, 석현덕, 한기주)
- 제75호 쌀 직불제의 합리적 운용 방안(박동규, 승준호)



- 제74호 협력적 산림관리 거버넌스 구축방안(석현덕, 박소희)
- 제73호 DDA 농업협상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송주호)
- 제72호 2014년 이후 한육우 사육과 가격 전망(허덕, 우병준, 이형우, 김태우)
- 제71호 지역임업 활성화를 위한 산림산업 클러스터 육성 방안(석현덕, 안선진)
- 제70호 주요 농축산물의 2013년 추석 가격 전망(이용선, 우병준, 서대석, 승준호)
- 제69호 농업의 6차산업화 개념설정과 창업방법(김태곤, 허주녕, 양찬영)
- 제68호 주요국의 산림환경서비스 보상 실태와 산림환경서비스 보상 방안(정호근, 석현덕)
- 제67호 2013년 7월 북한의 수해 상황과 경제적 피해(권태진, 임수경)
- 제66호 농촌 6차산업화를 위한 농촌관광의 발전 방향(박시현)
- 제65호 유기농업의 기술 수요와 기술개발 로드맵(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64호 농업총조사에 의한 시·군별 농업경쟁력 평가(이병훈, 윤종열, 윤영석)
- 제63호 국민행복을 위한 산림환경서비스의 정책 방향(석현덕, 안선진)
- 제62호 한·EU FTA 발효 2년, 농업부문 영향과 과제(문한필, 이현근, 남기천)
- 제61호 유전자변형 작물의 수입 현황과 과제(성명환, 박지연, 정원희)
- 제60호 창조경제, 농업·농촌의 새로운 활력증진 전략(박준기)
- 제59호 사료 원료의 수입 실태와 수입가격지수 산정(성명환, 윤재용)
- 제58호 엔화 환율 하락에 따른 농식품 수출의 영향과 과제(박기환)
- 제57호 농어업재해보험제도 개편의 효과 분석(정원호, 최경환)
- 제56호 농촌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과 정책 과제(송미령)
- 제55호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실태와 시장 전망(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54호 산불 관리의 현황과 개선 과제(정호근, 박소희, 석현덕)
- 제53호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관한 국민 지불의사와 지불금액 평가(김용렬, 정학균, 민자혜)
- 제52호 마늘 수요의 변화와 정책 과제(김성우, 노호영)
- 제51호 한·미 FTA 발효 1년, 농업부문 영향 분석(정민국, 문한필)
- 제50호 농식품 수출의 최근 동향과 지원 방안(박기환)
- 제49호 식물공장의 전망과 정책 과제(김연중, 한혜성)
- 제48호 사료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방안(지인배, 허덕, 송우진, 우병준)
- 제47호 2012년 농촌관광 수요와 시장규모(김용렬, 박시현)
- 제46호 종자산업의 도약을 위한 과제(박현태, 박기환)
- 제45호 축산물 유통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정민국)
- 제44호 국민행복 시대의 산림정책 방향과 과제(석현덕, 장철수, 민경택, 정호근)
- 제43호 정부 농기계임대사업의 실태와 개선 방안(강창용)
- 제42호 도시민이 바라는 농촌정주 공간의 모습(김용렬, 성주인)
- 제41호 농자재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와 시사점(강창용)
- 제40호 소비자의 안심 식탁을 위한 정책 과제(이계임, 이동소)
- 제39호 2013년 농정 이슈와 정책 과제(김정호, 박준기)

2012년

- 제38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2년 국민의식 조사결과(김동원, 박혜진)
- 제37호 농업수입보장보험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정원호)



- 제36호 식품 수급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황운재)
- 제35호 2012년 김장 수급 전망(서대석, 이형용, 권희민, 이용선)
- 제34호 사료가격안정기금 도입의 영향 분석과 시사점(송우진, 정민국)
- 제33호 국제 곡물가격 상승과 장단기 대응방안(성명환, 한석호, 승준호, 신승희)
- 제32호 도시농부: 도농상생의 가교(김태곤, 허주녕, 김예슬)
- 제31호 외국인이 본 우리나라 농촌관광(김용렬, 윤유식)
- 제30호 농산물 비축사업의 실태와 개선 방안(최병옥, 승준호)
- 제29호 2012년 추석 과일 수급 전망(한재환, 신유선, 이미숙, 윤종민, 이용선)
- 제28호 최근 농가경제의 동향과 정책 과제(이병훈, 윤영석)
- 제27호 중국의 FTA 협상 전략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최세균, 전형진, 정대희)
- 제26호 농촌지역 마을회관의 이용 실태와 시사점(김동원, 이병훈, 김광선, 박혜진)
- 제25호 약용식물의 수급 동향과 정책 과제(정호근, 조국훈)
- 제24호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의 실태와 개선방안(국승용)
- 제23호 구제역 이후 양돈산업의 동향과 과제(정민국, 우병준, 김원태)
- 제22호 북한의 가뭄 실태와 영향 분석(권태진, 남민지)
- 제21호 농어촌의 과소화 마을 실태와 정책 과제(성주인, 채종현)
- 제20호 농촌사회의 양극화 실태와 시사점(박대식, 마상진)
- 제19호 중국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시사점(문한필, 전형진)
- 제18호 미국 BSE 발생이 축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정민국, 우병준, 이형우)
- 제17호 한·중FTA와 농업 부문의 대응 방안(어명근)
- 제16호 견고추 가격의 변동성과 시사점(김성우, 한은수, 김명환)
- 제15호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실태와 정책 과제(김광선, 채종현, 윤병석)
- 제14호 국내의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실태와 시장 전망(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13호 최근의 귀농·귀촌 실태와 정책 과제(김정섭, 성주인, 마상진)
- 제12호 농작물재해보험의 추진 성과와 과제(최경환)
- 제11호 농산물 직거래장터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황의식, 김동훈)
- 제10호 최근의 경지면적 변화 동향과 시사점(채광석)
- 제 9호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최세균, 정대희)
- 제 8호 최근 소값 하락의 원인과 대책 방향(정민국, 우병준, 이형우)
- 제 7호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실태와 과제(박대식, 마상진)
- 제 6호 2012년 농정 이슈와 정책 과제(김정호, 최지현, 국승용, 박시현)

- 2011년
- 제 5호 2011년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김동원, 박혜진)
- 제 4호 한·미 FTA, 농업분야의 영향과 과제(최세균)
- 제 3호 농산물 수출증대의 요인과 경제적 파급효과
- 신선농산물을 중심으로 - (문한필, 김경필, 어명근, 전형진)
- 제 2호 2011년산 쌀 수급 전망 및 시사점(한석호, 승준호)
- 제 1호 2011년 김장시장 분석과 전망(이용선, 서대석)

KREI 농정포커스 제108호

2015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생산실태 및 시장전망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5. 8. 20.
발 행 2015. 8. 20.
발 행 인 최세균
편집위원 김홍상, 김병률, 박준기, 성주인, 우병준, 문한필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061-820-2000 <http://www.krei.re.kr>
인 쇄 (사)장애인생산품판매지원협회 인쇄사업소
02-2269-5523~4 dec5523@hanmail.net

ISBN: 978-89-6013-753-0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